발제신청서 및 발제문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단체 이름 | 단체 대표 성함 | 발제신청자 |  |
|  |  |  |  |
| 참가하게 된 동기 & 얻어갔으면 하는 것 |
|  |

|  |
| --- |
| 발제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? (주장이 담기면 더욱 좋습니다. ex. ~~로 ~~를 하자!) |
| 새로운 청년정치, 청년다운 방법이라면 지금 당장도 가능하다 |
| 지정 질문 (3분이내 발제할 수 있는 내용) |
| Q1. 청년이 **스스로**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필요한가요? 구체적 근거나 예시를 들어주세요. |
| 1)왜 나서야 하느나1-1) 청년실업이 열악하다. (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정치적 요구라기에 부족하다)1-2)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던져졌다. 세월호와 메르스.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이 나라를 걱정하고,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있다.=>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요구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.2) 그러면 왜 정치에 무관심 한 듯 보이는가? 기존의 방식, 제도, 세력이 이런 요구를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. 청년국회의원이 청년의 역할을 대변했는가?‘청년정당’을 표방하는 지금의 정당들이 우리 삶의 처지를 더 나아지게 했는가?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요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정치적 요구를 담아낼 공간이 없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생각한다. 특히 진보정당들 조차 청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한다.그래서 필요한 것은 =>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넘어, 우리의 정치적 요구를 담아낼 그릇이 없다. 제도가 ㅓ없다. 그릇을 만들자, 제도를 바꾸자 라는 내용을 선명하게 걸어야 한다. |
| Q2. ‘청년 정치세력화’, 혹은 ‘청년 정당’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시나요? |
|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한다. 기존의 세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.1) 가치 : 단기적인 이윤 중심 => ‘미래’,‘청년’에 대해 논함으로써 장기적,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. 2) 현실과 구조 :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것들의 붕괴를 의미한다. 대표적인 예로 양당구조, 정치의 진입장벽이 높은 구조. 즉, 새민련/새누리당을 받치고 있는 구조를 깨버려야 한다.  |
| Q3. 2016년 총선, 17년 대선을 염두에 두었을 때,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어디까지 행동해야 한다고 보시나요? (ex. 투표, 정책 발의, 선거운동, 입후보, 창당 등) |
| 1)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?\* 청년들의 잠재적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?80년대 국가주의,권위주의 -> 민주주의라면 2015년 대의민주주의 -> 1) 직접 나서자(정치에 진출. 정치권력을 미래세대에 배분하는 일. / cf. 기존의 ‘청년국회의원’은 이런 분노를 무마시키기 위해 시혜적인 혜택을 나누어주는 방법이었다. ) 2) 자치/자발성에 기초한 민주주의2)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?2-1) 외국 성공사례 – 포데모스- 써클 : 사회운동의 평등구조 + 그것을 묶어낼 총회좌우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카스트 vs 민중으로 새로 선을 그었다.2-2) meetup.com 모임을 자발적으로 만드는 에너지2-3) barakobama.com오바마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엮는 네트워크2-4) 결론자발성에 기초하고 다양한 오프라인을 모임을 조직할 수 있는 것.우리 세대의 강점은 ‘모바일’(IT기술을 통한 네트워킹)기존의 청년단체들이 기득권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. 청년조직화를 쥐고 가려고 하지 말고 청년 스스로에게 맡겨야 한다. 과정에서 신뢰를 얻는 방식이어야 한다.써클을 통해 청년 정치리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.cf. 새누리당 디지털 정당. 권위적인 정당, 과거지향적 정당에 소통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 뿐이다. 결코 자발성에 기초해서 될 수가 없다.2-5) 실현기술자와 전 청년당 창당자 등을 모아 meetup.com과 barakobama.com의 중간쯤에 있는 청년정치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서 베타테스트 중이고, 7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이다. 그리고 그런 직접 참여의 힘을 모아서 8월 1일 청년전략스페이스에서 대규모 원탁회의를 할 예정이다. 토론회를 해서 결론을 내보면 좋겠다. |
| 지정 질문 외에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참고자료 (자유 분량) |
|  |
| 발제에 필요한 실무준비가 있나요? (ex. PPT를 써야한다, 영상을 봐야한다) |
|  |